

“1인기업 고정관념 깨고 균등한 기회 주어졌으면”

청년, 창업에 도전하다 (5) 케이그래픽 컴퍼니 김무경 대표

서울서 광고대행사 근무하며 다양한 프로젝트 참여
고향에 와 브랜드 기획사 창업... 빅데이터 기반 분석
“제주, 브랜드화 잠재력 무궁... 인력 부족은 안타까워”

“1인기업에 대한 고정관념의 틀을 깨고 그들에게도 공평하고 균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청년 기업이 활성화되지 않을까요?”

제주에서 브랜드 컨설팅 회사 ‘케이그래픽 컴퍼니’를 창업해 현재 다각적인 분야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청년 사업가 김무경(36) 대표의 바람이다.

김 대표가 운영하는 ‘케이그래픽 컴퍼니’는 브랜드 기획, 컨설팅, 디자인, 광고 마케팅을 담당하는 쉽게 말해 광고대행사 개념을 가진 회사다. 회사 운영은 빅데이터 기반 타겟 및 시장분석을 하고 분석된 자료를 기반으로 브랜드컨셉을 도출한 뒤 디자인을 수립한다. 이어 TV광고, 라디오광고, 지면광고부터 SNS, 온라인, 디지털 광고 및 옥외광고까지 가장 효율적이고 적합한 마케팅 매체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김 대표는 창업 이전 서울의 유명 광고대행사서 일을 하며 여러 분야의 프로젝트를

맡아왔다. 당시 그는 캐논, 유니클로, 이케아, BMW 등 대기업 광고의 기획자로 참여하며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갔다. 그러던 중 2016년 3월 그는 돌연 고향인 제주로 돌아와 브랜드 컨설팅 회사 ‘케이그래픽 컴퍼니’를 창업했다. 그는 “8년 동안 서울에서 유명 광고 대행사에서 일하며 많은 광고의 프로젝트를 기획·제작하며 커리어를 쌓았지만, 문득 본인의 생활을 포기하면서까지 일에 빠져 살던 자신을 돌아보게 됐고 이렇게 살면 안되겠다 싶어 제주로 돌아왔다”면서 “당시 주변에서 ‘왜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제주로 돌아가냐’는 만류의 소리도 들었지만, 제주에서 본인이 하는 일(브랜드 기획)에 대해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었다”며 제주에서의 창업 계기를 설명했다.

김 대표는 제주에서 창업한 이후 제주감귤 브랜드화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현재 대형마트에 감귤을 납품하고 있기도 한 도내 모 영



제주 브랜드 컨설팅 회사 ‘케이그래픽 컴퍼니’의 김무경 대표는 1인기업에 대한 고정관념의 틀을 깨고 그들에게도 균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청년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농조합법인의 감귤 상품을 브랜드화하기 위해 젊은 20~30대층을 타겟으로 잡았고, 또 기존 10kg 상자에 담겨 판매되고 있는 감귤을 1.5kg의 지퍼백에 담아 판매하는 형식으로 브랜드 리뉴얼을 기획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지퍼백에 감귤을 담아 판매한 뒤 다양한 연령층에서 구매가 이뤄졌고, 이는 곧 매출로 이어져 이전 6개월의 매출액을 리뉴얼 이후 3개월 만에 초과 달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이처럼 제주에서 브랜드화를

시킬 수 있는 조건이 많지만, 이러한 조건을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제주의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그는 “제주의 으뜸 해면 등을 제주의 모든 게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지만, 제주에서 이를 기획하는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제주 경제와 관광의 미래를 봤을 때 제주의 브랜드화를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며 많은 고민이 이뤄져야 할 시기다. 인재들이 모여 제주의 브랜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김 대표는 1인기업에 대한 고정관념의 틀을 깨고 그들에게도 균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청년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즈니스 과정에서 1인기업이면 의구심부터 갖게 현실”이라며 “이에 대한 시각을 열고 공평하게 받아들여 1인기업에도 균등한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사실 최근 대기업에서도 탄력근무,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등 사회구조가 많이 바뀌고 있다. 오히려 1인기업이 조직화 되어있는 대기업 회사보다 일을 더 잘할 수도 있는 측면”이라며 “이런 기업인들에게 지원이 이뤄져야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청년기업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김 대표는 서귀포시가 청년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스타트업 베이’ 입주기업으로 선정되면서 사업 운영에 있어 많은 도움을 받게 됐다. 창업인들이 한데 모여 회의를 진행하거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스타트업 베이가 문을 열면 청년들이 창업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장소가 마련돼 이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실버세대가 의기투합해 만든 특별한 여행사

꿈꾸는 실버세대
(5) 모다들엉 여행사

국내여행안내사 14명 모두 60대
“노인 특화 전문여행사로의 꿈”

제주시 노형동 원불교 신제주교당 인근 골목을 끼고 들어가다보면 그동안 제주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특별한’ 여행사를 만날 수 있다. 모다들엉 여행사.

사무실에 들어가니 머리가 희끗한 직원 2명이 방긋 웃는 얼굴로 낯선 손님을 맞았다. 이경희(65)씨와 강경민(62)씨는 모다들엉 여행사가 문을 연 지난해 10월부터 이 곳에서 국내여행안내사 일을 하고 있다.

모다들엉 여행사에는 매니저를 제외하면 이씨와 강씨를 포함해 모두 14명의 국내여행안내사가 근무하는 데 이들 모두 이씨와 강씨처럼 머리가 희끗한 60대 장년들이다.

‘실버세대’로만 구성된 여행사가 생긴 것은 제주에 처음 있는 일이다.

모다들엉 여행사는 제주시니어클럽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보건복지부는 중·장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인취업교육센터를 운영하면서 지난 2017년 전국을 대상으로 센터에서 진행할 교육 사업을 공모했는데 당시 제주시니어클럽은 국내여행안내사 교육 과정을 제안했다. 그리고 경쟁 끝에 당당히 노인취업교육센터 10개 교육 사업 중 하나에 국내여행안내사 교육이 선정됐다.

김효의 제주시니어클럽 실장은 “노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1회성 일자리가 아니라 앞으로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게 전문성과 장기성이 담보된 일자리”라면서 “국내여행안내사 직종은 그런 점에서 적합하다고 생각해 공모에 도전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 김 실장은 “단체관광이 연령, 성별에 상관없이 모든 관광객을 전세버스에 한 데 태우고 여행지를 돌아다니는 쪽으로 굳어지고 있고 먹거리의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수가 많은) 20~30대가 선호하는 쪽에 맞춰져 있다”면서 “이런 틈새를 파고들어 노인 특화 여행을 설립한다면 충분히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의욕은 충분했지만 여행사를 꾸려나가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란 것을 구성원 모두가 알고 있었다. 강씨와 이씨 등은 노인취업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들으며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증을 딴 뒤에도 곧바로 여행사 일에 뛰어들지 않고 1년 간의 준비 과정을 거쳤다고 한다. 이씨와 강씨는 “자격증을 취득한 뒤 약 1년 간은 제주도관광협회, 제주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국내여행안내사 실습 등을 거치며 실무 경험을 쌓았다”고 말했다.

이씨와 강씨는 지난 4월을 잊지 못한다고 했다. 이들은 그달 8일부터 10일까지 충남의

한 고등학교 수학여행단을 인솔해 도내 관광지를 안내하고 여행단의 안전을 책임지는 ‘학생안전관리자’ 역할을 맡는 것으로 여행안내사로서의 ‘데뷔전’을 치렀다. 2013년과 2014년 각각 초등학교와 공기업에서 퇴직한 이씨와 강씨가 근 10년 만에 제2의 직장에서 자기의 이름을 건 일에 첫발을 내딛은 것이다.

이씨와 강씨는 일을 마치고 나서 “살아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강씨는 “전에 일하던 직장 생활은 정적이었는데 지금 하는 일은 온몸을 움직이고, 사람들을 만나는 등 동적인 일이라 삶에 활기가 든다”고 했고, 이씨는 “묵밭을 짚은 학생과 함께 새벽오름을 오르는 일이 기억에 남는다”며 “첫 일이라 힘들긴 했지만 무사히 마친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했다.

이들의 남은 바람은 모다들엉 여행사가 하루 빨리 자리 잡아 노인 특화 전문여행사로 널리 알려지는 것이다. 강씨는 “안내사들 모두 일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다”며 “문을 연지 일



사진 왼쪽부터 모다들엉 여행사에서 사업단 팀장을 맡은 홍영민씨와 국내여행안내사로 근무하는 이경희, 강경민 씨. 제주시니어클럽 김효의 실장.

마 안돼 아직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제주도도 이런 일자리를 적극 홍보해 많은 장년층이 우리들처럼 도전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제주의_파란하늘 #같이_지킵시다



이미 제주솔라에너지의 많은 고객님께서 전기요금 절감의 혜택을 누리고 계십니다

주택용 태양광



이번에 보조금 받고 부담없이 설치하세요

30년 쓰는 태양광! 어느 기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참여기업	보증기간	총공사비	자부담금	보조금	연락처
제주솔라에너지	10년	5,490,000원	2,685,000원	2,805,000원	742-5775
상명엔지니어링	8년	5,400,000원	2,595,000원	2,805,000원	744-4209
나눔에너지	6년	5,544,000원	2,739,000원	2,805,000원	745-0420
세경	7년	5,610,000원	2,805,000원	2,805,000원	733-4340
세경이앤씨	7년	5,610,000원	2,805,000원	2,805,000원	733-1873
보타리에너지	5년	5,610,000원	2,805,000원	2,805,000원	747-8826
대은	5년	5,610,000원	2,805,000원	2,805,000원	755-8446

2019 태양광발전 보급사업

사업 주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에너지공사

올해는 도민 여러분께서 선택하신 참여기업에서 30년동안 사용할 주택용태양광을 설치하게 됩니다.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제주솔라에너지

742-5775

제주시 노형로 356 벽상빌딩 2층 www.jejesolar.co.kr